



GIST '제2회 과학상상 미술대회'

아이들 손끝서 펼쳐진 무한 상상 '미래 우주'

대상 조유하·임예원 등 수상작 47점 오는 27일까지 옹릉아트홀서 전시회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어린이 손끝에서 펼쳐진 미래 우주 모습을 그리는 미술대회 수상작을 선정, 전시회를 연다.

2일 광주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제2회 GIST 과학상상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 수상작 47점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참가자 가족 등 400여명이 GIST 캠퍼스를 방문했으며, 어린이들은 교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우주를 그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우주를 주제로 한 상상화 ▲GIST의 미래



경경을 당일 배부된 8점 도화지에 자유롭게 상상해 그렸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최근 제2회 GIST 과학상상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 참가자 가족 등 400여명이 GIST 캠퍼스를 찾았다. 수상작은 오는 27일까지 캠퍼스 내 '옹릉아트홀' 3층에서 전시한다. <광주과학기술원 제공>

초등학생 참가자들의 완성작 총 150점이 접수됐고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GIST 총장상 2명 ▲(재)지스트발전재단 이사장상 3명 ▲후원사 회장상 ▲GIST 대외부총장상 9명 ▲GIST 대외협력처장상 12명 ▲GIST 옹릉아트홀 아트디렉터상 15명 등 47점을 가려냈다.

대상인 GIST 총장상은 저학년부 조유하(남평초)·고학년부 임예원(광주삼육초) 어린이가 각각 수상했다. (재)지스트발전재단 이사장상(금상)은 저학년부 이서현(마지초)·이재희(한아람초), 고학년부 유라희(선창초) 어린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은 GIST가 지역사회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캠퍼스 내 다목적 건물 옹릉관 내 벽에 조성한 전시 공간인 '옹릉아트홀' 3층에 27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최순임 옹릉아트홀 아트디렉터는 "어린이들의 작품에는 상상력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흥미와 창의적인 해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각자의 시선으로 그려낸 우주의 모습과 GIST의 미래 풍경이 무척 인상 깊었다. 이 대회가 어린이들이 예술과 과학의 접점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다이지

호남대, 예비 보건의인 위한 '오은영 박사 특강' 호응

'마음돌봄' 주제 자존감 회복 등 조언 유혜숙 학장 "자신 이해하는 기회 됐길"

호남대학교는 2일 "지난달 30일 교내 4호관 강당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신건강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를 초청, 보건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예비 보건의인 위한 마음돌봄'을 주제로,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학업과 진로 설계 과정에서 마주하는 심리적 불안, 정체성 혼란, 대인관계 갈등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직면하고 이를 회복하는 전략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오은영 박사는 60분가량의 강연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은 타인의 고통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안과 좌절은 성장의 전조이며, 자기 효능감은 자존감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리 조절 및 자존감 회복 방법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강연에 이어 1시간 정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진로 결정에 대한 확신 부족, 부모와의 갈등, 인간관계 스트레스 등 학생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솔직하게 공유됐고, 오 박사는 따뜻한 공감과 조언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특히 반려동물산업학과 학생들의 "보건의료인의 공감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기 자신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답변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특강을 총괄한 유혜숙 보건과대학장은 "보건과대학 학생들은 향후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고통을 함께 다뤄야 하는 전문인으로 성장할 예정이기에 정서적 교육은 필수적"이라며 "학생들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호남대는 지난해도 반려동물산업학과 신설 기념으로 오은영 박사를 초청해 '예비 보건의인 위한 진로 선택과 건강관 자존감', '반려동물과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연속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김다이지

동신대 산림조경학과 '정원드림 프로젝트' 선정

'에덴의 결'... 도심 생태적 전환 구현

동신대학교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정원드림 프로젝트' 전국 권역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서울, 대전, 세종, 광택, 전주 등 총 5개 권역에서 진행되며 권역별로 5개팀씩 전국 총 25개 팀(125명)이 선발됐다.

정원 분야 전공 대학생으로 구성된 각 팀에는 전문 정원 작가가 매칭돼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멘토링이 제공된다.

동신대 산림조경학과는 '에덴의 결(Eden's Resolve)'이라는 제목의 정원 아이디어로 도시 유희공간의 생태적 전환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 다양성 회복을 핵심 가치로 삼아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수관 식재 ▲빗물 정원 도입을 통한 물순환 회복 ▲수분 매개 곤충과 자생식물 중심의 생태 구조 설계를 담고 있다.

산림조경학과 3학년 박현석·노건웅·김태겸·조형준·정소이 학생 등 5명이 팀을 이뤄 생태적 정원 설계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정원 작가와 함께

실습 정원을 기획·조성하는 전 과정을 체험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정원 조성 및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지역 공동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녹지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김다이지

광주 학교 1천290실에 와이파이 설치

광주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2일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무선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프라 확대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AID T(지능형 디지털 교과서), 광주아이온(AI-ON), 에듀테크 등 AI 기반의 교육 콘텐츠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수업이 이뤄지는 공간에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정보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199억6천300만원을 투입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실 등 1천290실에 고성능 무선 와이파이 장비(Access Point)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이 활발해지고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다이지

그린 알로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